

춘천시, 복지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학교밖 청소년 사회진출 지원...취약층 어린이식당도 운영



드림 프로그램 문화체험을 하는 청소년들



어린이 식당

강원 춘천시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돕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 드림 프로젝트'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역 내 거주하는 만 9~24세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추진한 이 프로젝트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학력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 1인당 최대 90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자 50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1명이 대학에 수시합격을 했으며, 3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시 산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사업을 담당하고, 대상자는 심의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한다.

프로젝트는 1단계 동기 수당, 2단계 노력 수당, 3단계 성취 수당으로 나뉘어 시행한다.

1단계는 자립 동기 강화 두드림과 학습 클리닉 중에서 1개를 수강할 수 있으며, 동기 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2단계는 지원센터 프로그램 30시간을 이수하거나 자격증 취득과정에 참여하면 30만 원의 노력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자격증을 제출하거나 검정고시 합격 또는 취업 아르바이트 3개월 유지 시 최초 20만 원을 준다. 이후 이런 일을 성취할 때마다 10만 원을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 먹거리평등정의연대팀이 '소셜리빙랩'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급식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린이 식당을 운영 중이다.

춘천사회혁신센터가 추진하는 소셜리빙랩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시민 스스로 해결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확산 가능한 모델을 실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마을 단위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 아이들의 식생활 문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찾고자 지난 10월 14일부터 소셜리빙랩을 운영 중이다.

10월에는 매주 목·금요일에, 11월은 매주 수·목·금요일에 거두리 한 식당에서 오후 5시~8시에 급식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맞는 친환경 식단을 1인당 3천 원에 제공했다.

어린이 식당은 서울과 세종, 수원, 용인, 부산 등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강원지역에서는 처음이다.

먹거리평등정의실천연대는 어린이 식당 실험을 통해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한 저녁 한 끼를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전용 식당의 필요성을 확인해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❶



시민행복도시, 춘천

나만의 도시를 만들자

춘천



싱그런 봄 햇살이 가득, 도시는 유쾌한 꿈과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아이의 호기심어린 표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험심 넘치는 상상은 내일을 풍요롭게 꿈꾸게 합니다.
춘천은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